

생산과잉을 막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자.



정 선 부

축산시험장 가금과장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지난 10여년간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착실하게 발전하여 현재는 닭의 사양관리 기술면에서나 사육규모면에서 선진 양계국으로 부상하였다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양계산업의 발달은 계란이나 닭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공급함에 따라 국민식생활 개선과 체력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고 이 결과로 오는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수출이 활발해지고 국제수지가 큰폭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가 많은 금액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공산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8월에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고 일부 가금육이 이미 수입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가금생산물의 수입마저도 완전 개방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축산물의 수입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건설하게 발전하여 거세게 몰아치는 양계산물의 수입 바람을 막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미비 등으로 양계생산물의 판매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수개월간 지속되어 닭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더 이상 양계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그로키”

상태에 놓여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불황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여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양계 생산물의 수입물결에 무참히 희생되는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계농가가 지역별, 업종별로 단합하여 양계 협동조합 또는 양계단지를 조직하여 사료 및 생산자재를 싼 값으로 공동구입하고 개별농가가 독립적으로 생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산된 계란이나 브로일리를 공동으로 계통출하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켜 양계생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생산물의 유리한 판매로 수익성을 증가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동시에 양계산업의 시설근대화로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견실한 기반이 구축될 것이고 전국 양계농가가 협동조합이나 양계단지로 뭉쳐질 경우 계란이나 브로일리의 생산조절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생산비절감, 생산조절은 단순한 협동조합이나 단지의 조성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이나 단지를 조성한 후 양계인 스스로가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먼곳에 있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양보하는 정신자세를 가져야만이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이 견실하게 발전하고 개방화 시대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양계**